

해외 현장 연구 에세이

새로운 도전

영어영문학과 201821695 김진우

들어가며

해외 현장 연구를 신청하기 전, 일본, 베트남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일본은 직접 여행도 해보고 애니메이션 등 나를 선호하는 국가였다.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해외 현장 연구에서 일본을 선택하고 어떤 주제를 연구를 해볼지 생각하고 찾아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제학부 학생으로 무역, 경제, 통상 등을 배워왔기에 일본의 문화보다는 산업을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많은 팀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해외로 나가는 팀 프로젝트는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나에게 팀을 위해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다. 과 학생회장부터 파란학기 팀장 그리고 국제통상 연구회 회장 등 팀장 혹은 리더의 자리에서 이끄는 역할에 자신이 있어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 누구보다 많은 연구를 해 팀을 이끌어야겠다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해외 현장 연구는 나에게 학생으로서, 팀장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팀 및 주제 선정

처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에나 어색하고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다. 그것을 알기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가게 된 8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팀을 나누게 되었다. 일본의 문화 및 사회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팀과 나와 같은 산업을 다루고자 하는 팀을 나누어 4명씩 2팀을 결성하였다. 우리 팀은 일본의 중고거래 산업의 3차 전환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 중고거래 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은 나를 다른 팀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 나를 포함한 팀원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었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주제가 선정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연구에서 처음 다짐한 것처럼 팀장이 되었으며 팀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다.

일본 중고거래 산업 연구

국제통상 수업을 수강하며 일본의 문화 및 경제에 대해 익히 들었으며 파란학기를 진행하며 일본의 식품 산업에 대해 연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산업이란 조금만 달라져도 각자의 특징과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고거래 산업을 연구하기 위해 처음부터 시작하였다. 팀에서 헤민이가 중고거래 산업에 대해 흥미가 있어 미리 알고 있었기에

흐름을 잡기 위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KOTRA 홈페이지에서 일본의 중고거래 산업, 한국의 중고거래 산업 등 연구를 하기 위해 기초 지식을 쌓았다. 이후 우리 팀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의 Mercari(메루카리), 지모티 등에 대해 연구를 했다. 이 과정 속에서 언어의 장벽도 있었으며 기존에 3차 전환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팀장으로서 팀원들 역시 같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해 계속해서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흐름을 잡아가며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하며 연구를 원활하게 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 속에서 팀원들끼리 서로 가까워지고 어려운 연구조차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해외 출국 및 일정

국내에서 국내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3차 전환 연구를 마치고, 일본 인터뷰 일정을 조정했다. 출국 전 날 “벌써 내일이면 출국이네, 시간 빠르다”라고 팀원끼리 이야기를 하며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을 안고 잠에 들었다. 사실 인천 공항에서 팀을 만나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포함해 모두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첫째 날

첫 번째 날에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기에 팀원들과 함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러나 3시까지 체크인인데 2시에 도착을 하는 바람에 얼리 체크인을 할 수 없어 주변에 카페를 교수님과 함께 갔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수술을 하셔서 일본 일정을 함께 하는 것에 있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오는 길부터 일본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카페에서도 역시 교수님과 커피와 디저트를 마시며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팀원들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사실 모두가 피곤한 상태였기에 얼른 숙소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만을 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일본의 새로운 디저트(와플, 팥 커피, 레몬 커피)를 먹고 주변을 둘러보니 일본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고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TV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일본의 중고거래 산업의 대표 주자 메루카리가 나왔다. 이를 보면서 정말 팀이 연구한대로 메루카리가 일본에서 영향이 있고 유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일본에 연구를 하러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후 팀원들과 함께 오꼬노미야끼를 먹으러 갔다. 가게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었는데, 아무 곳이나 들어갔는데 이런 경험을 해본 것이 신기했다. 첫 날은 이렇게 팀원들과 다음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휴식을 취하며 일본을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며 끝났다.



<교수님과 함께 카페>



<일본 TV에 나오는 메루카리>

둘째 날

두 번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인터뷰가 진행되어 아침 일찍 일어나 팀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총 3가지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중고거래 어플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 동경무역관 방문, 세타가야구 요가 에코 플라자 방문이었다. 동경무역관과 세타가야구 요가 에코 플라자 방문은 시간이 겹쳤기에 2명으로 팀을 나누어 방문했다. 나와 헤민이가 한 팀, 미영이와 지현이가 한 팀이 되어 각각 에코 플라자, 동경무역관을 방문했다. 이 일정 전, 세타가야구 근처로 가 인터뷰를 할 케냐와 중국에서 온 분들을 만나 중고거래와 어플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우리가 예상한대로 모두 야후 옥션과 같은 중고거래 어플을 즐겨 이용하며 일본의 중고거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나오고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편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시간이 촉박해 세타가야구 요가 에코 플라자로 급히 갔다. 에코 플라자를 들어가기 직전 헤민이와 함께 많이 떨리긴 했지만 인터뷰를 진행할 헤민이는 더욱 긴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도와주기 위해 옆에서 번역기를 켜 바로바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후 에코 플라자에 들어가니 3R, SDGs 등 3차 전환에 대해 연구를 한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이후 직원 여섯 분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시설 견학, 인터뷰를 너무 과분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함께 동행해주시면서 시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옆에서 설명해주시는 등 일본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3차 전환에서 내용을 다룰 지모티 스팟과 연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역시 설명을 해주시고 견학을 시켜 주셨다. 이후 미리 메일로 보내 드린 질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주시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본격적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한 첫 날이었지만 시작부터 많은 내용을 연구할 수 있었고 팀원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세타가야구 요가 에코 플라자 인터뷰>

셋째 날

세 번째 날은 일본의 중고거래 어플을 배워볼 수 있는 메루카리 스테이션을 방문하고 이후 다른 지역의 지모티 스팟을 방문하고 직접 구매해보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중고거래 회사인 메루카리와 지모티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보며 더욱 더 일본에서 연구 목적을 확실히 이룰 수 있었다. 단지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본 자료보다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장소에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니 일본에서 중고거래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팀원들은 각자 개인 일정을 보내고 나는 교수님과 함께 도쿄 스카이 트리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교수님과 도쿄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교수님께서 도쿄 스카이 트리를 방문하고 싶어 하셨기에 연락을 드려 방문했다. 물론 교수님과 함께 하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교수님께서 먼저 사진을 함께 찍어 주시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덕분에 시간 가는 지를 모르고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스카이 트리에서 음악을 틀고 축제를 하고 있기에 그곳에 앉아 교수님과 2시간 정도 지금까지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 등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물론 연구 외의 시간이었지만 이런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었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후 교수님과 스카이 트리를 구경하고 백화점에서 일본의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를 꿈 꾸며 준비하는 나에게는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이후 교수님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치란 라면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를 끝낼 수 있었다.



<지모티 스팟>



<교수님과 스카이 트리>

네 번째 날

이 날은 신주쿠 리사이클 센터와 신주쿠에 있는 메루카리 스테이션 본점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신주쿠 리사이클은 앞서 다녀온 세타가야구 요가 리사이클 센터와는 다르게 지모티 스팟과 협약이 맺어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3R과 환경에 대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3R, 푸드 드라이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가 연구하는 일본의 중고거래 산업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외부인들이 와도 부담 없이 정책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해주고 견학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3R 정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메루카리 스테이션 역시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였지만 진행 방식, 소개 방식 등이

새로웠으며 이전에 지모티 스팟에서 직접 500엔에 구입해본 옷을 메루카리 어플을 통해 판매 과정을 배우는 등 메루카리 시스템에 대해 확실하게 배워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 자리에는 일본 현지인 분들도 3분이 계셨는데 청년부터 노인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서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자신감 역시 얻을 수 있었다. 메루카리 스테이션 방문을 이후로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일본에서 헤민이가 없었다면 팀이 앞으로 나가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팀장으로서 일본어를 잘 하지 못했기에 헤민이에게 많이 의존했고 헤민이가 일본어로 인터뷰 및 일정을 잘 계획을 해주었기에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다른 지현이와 미영이가 불평 불만 하지 않고 스스로 잘 해주었기에 네 명 모두 순조롭게 일정을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팀장으로서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하지 못한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려 앞으로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더욱 노력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 신청하기 전 언어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팀원들의 일을 배분하고 멘탈을 관리하는 등 언어 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려 노력을 했던 것 같다. 네 명 모두 최선을 다 했기에 탈 없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메루카리 스테이션>

다섯 번째 날

이 날은 함께 일정을 정리하고 각자 하고 싶은 것을 진행하고 저녁에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교수님께서 우에노 공원 근처의 북경 요리점을 데려가 주셨는데 정말

맛이 좋았다. 사실 일본에서 왜 북경 요리를 먹는지 다들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지만 모두 한 입 먹고 나서 정말 감탄사를 금치 못하며 그 많은 음식들을 빠르게 전부 먹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본 일정을 잘 소화해준 우리 Going Ajou 호 팀원과 후리가나 팀원들에게도 고마웠다. 또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신 이병호 교수님과 국제학부 선생님들에게 역시 감사드린다. 이후 일본에 오기 전부터 야구를 정말 좋아하던 나는 일본의 야구 배팅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어 교수님과 식사 자리가 끝난 후 혼자 아키하바라로 뛰어가 일본의 야구 의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속에서 줄을 기다리는 일본인과 함께 일본의 대표 선수 오타니 쇼헤이, 한국의 대표 선수 김하성 선수 이야기를 함께 하며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는 생각도 들게 했다. 일본이란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일본에 대해 잘 모르던 내가 현장 연구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값진 경험인 것 같다.



<아키하바라 야구 센터>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역시 교수님께서 호텔 조식을 대접해 주셔서 교수님과 함께 일본의 호텔 조식을 경험했다. 일본 음식 낫또를 먹는 법을 알려주시고 일본의 조식에 대해 설

명을 해 주셔서 일본의 음식 문화 역시 배우며 마지막 날까지 일본에 대해 알차게 배울 수 있었다. 이후 다시 숙소로 돌아가 짐 정리를 하며 아쉽고도 정말 값진 일본 연구가 끝났다는 사실에 시원 섭섭했던 것 같다. 이후 팀원들과 교수님과 함께 나리타 공항으로 돌아가 한국으로 복귀를 준비했다.

마치며

해외 현장 연구 수업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과 같았다.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잘 알지 모르던 일본에 대해 더욱 나아가 일본의 중고거래 산업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다. 또한 어느 집단에서 팀장, 회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았던 나에게 4개월가량 팀끼리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직접 해외에 나가는 연구를 하는 새로운 경험 속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 역시 큰 도전이었다. 연구를 하고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도 정말 많았지만 팀원들과 유연하게 이를 대처하며 목표를 보고 달려가니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해외 현장 연구라는 도전은 나에게 있어 다른 도전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더욱 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또한 일본의 중고거래 산업과 한국의 중고거래 산업을 연구하며 얻은 지식들 역시 다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할 산업에 있어 나에게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다. 해외 현장 연구는 나에게 있어 국제학부 학생으로서, 인간으로서 다양한 성장을 하게 해준 인생에 있어 중요하고 값진 경험이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